

『창세기 15회: 창세기 16:1-6』

1. 가족 내의 갈등(16:1-6)

12장에서 기근이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했다면, 16장에서 불임이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합니다.¹⁾ 1절은 사래의 불임과 하갈을 소개합니다. 하갈은 사래의 여종으로 애굽 사람입니다. 2절에서 사래는 불임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세워질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²⁾

이미 10년을 기다린 사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절망합니다.³⁾ 랍비들은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당시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사래는 하나님을 기다렸음에도 이혼 사유만을 얻었을 뿐입니다.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오점만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대단한 축복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삶에 오점은 생기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얼룩과 흠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사래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종 여주인이 불임인 경우 종에게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종을 남편에게 제공함으로써 두 번째 아내를 얻지 못하게 하곤 했습니다.⁵⁾ 현재 아내로서의 지위가 위태한 만큼, 사래에게는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래가 처한 현실, 사래의 절박한 감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래의 동기를 서술합니다. 사람은 사래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를 현실의 절박함에서 찾을 것이고, 사래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래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이

1)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471.

2)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497.

3) 사래의 말에는 절망의 어조가 깃들여 있다(마치 창3:12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471.

4)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31.

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231

유를 ‘무시당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합니다. 사래는 자녀를 낳아서 자신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즉, 사래는 자녀를 낳지 못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녀를 낳아 자신을 세우고 싶었습니다.⁶⁾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번 주에 에스라 10장에서 보았듯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정황을 무시한 채로 다가옵니다. 온전한 주일성수, 십일조와 같이 하나님께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일부터,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라는 명령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십일조를 온전히 못한다면, 사실 온전히 못 드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실 용서하기 힘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황’을 핑계로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결국 너의 삶을 더 잘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나를 섬기지 않고 너의 삶을 살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순종을 막아서는 내면의 동기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창 16:3)

12장에서 아브람이 사래를 바로에게 주었듯이, 16장에서 사래는 아브람에게 하갈을 줍니다. 애굽에서 사래는 ‘취해지고 주어졌’는데, 이제 하갈이 ‘취해지고 주어집니다. 아브람도 사래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합니다.⁷⁾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람을 사래보다 더 책망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오늘 사건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사래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좋은 길을 찾았고, 그 방법대로 행하라고 아브람에게 권합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아브람도 사래의 말을 따랐습니다.⁸⁾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후손에게 죽음을 안겼듯, 아브람도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에게 죽음과 사망을 안깁니다(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혼란을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부활로 잇고, 아브람이 가져온 분열은 연합으로

6) 정우준, 『창세기 I』(서울: 부크크, 2019), 161.

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502.

8)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472.

바꾸셨습니다.

사래와 달리 하갈은 임신합니다. 사래는 임신한 하갈이 자신을 이전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⁹⁾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칼랄’(경멸하다)은 누군가를 가벼이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12장 3절에서 ‘너를 저주(칼랄)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하갈은 사래는 낮추어봄으로써 아브람 가족을 저주하는 편에 속합니다.¹⁰⁾

사래는 본래 계획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지위가 더 세워지지 못하고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무엇을 성취하고 이룬다고 해서 자신의 지위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좋은 직장을 다니면, 멋지고 아름다운 이성친구를 만나면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의 극도의 경쟁으로 인간성이 파괴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고위공무원이 되었지만, 과도한 업무와 책임, 부담, 승진 경쟁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만났지만, 늘 애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사람을 쟁취하면,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힘겹게 성취를 이루어도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고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인류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를 증거합니다.

분노한 사래는 아브람을 찾아가서 아브람을 비난합니다.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창 16:5)

사래는 아브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주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람은 사래에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하갈을 보호하지 않는 그릇된 태도를 보입니다.¹¹⁾

9)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하갈이 적극적으로 사래를 경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래를 이전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여주인은 그녀의 판단에서 낮아졌다’(NJV) 정도가 적절한 번역입니다.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498.

10) Kenneth Mathews, 『창세기 2』, 232.

좋은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적으로 교양 있고 강한 사람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지도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저버리고 교양 있고 강한 사람들을 편들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일진'들 편에 서길 좋아하지, '왕따'당하는 편에 서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비겁하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인간은 꽤나 비겁한 존재입니다.

아브람은 옳고 그름에 관한 감각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사례만 진정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하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악한 집단은 늘 문제가 발생하면 희생양을 찾고, 대개 그 희생양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 예리고를 지나셨습니다. 예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예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리고에서 하루를 쉬고 가시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접을 무시하고 예리고를 지나쳐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리고 사람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리고 마을을 지날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돌려 예리고로 들어가 삭개오 집에 머무르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한 적개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서 묵으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합니다. 삭개오의 집은 정결한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내놓은 의자에 앉고 손님 침상에서 주무신다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 의식이 치러야 합니다.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정결해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여기까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집단에서 배척받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도 집단에게 배척당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지키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그분은 참된 구주이십니다.¹²⁾

최근 교회는 지나치게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503.

12) Kenneth E. Bailey,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8); 박규태 역,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74-284.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사회적 평판을 얻고,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창 16:6하반절)

사래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합니다. 이걸 보면, 사래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신의 지위였지,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래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하갈은 사래의 보호도, 아브람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¹³⁾

사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사래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전의 상태와 지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람과 사래는 하갈을 이용하고 괴롭힙니다. 이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세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사래의 모습처럼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문제 앞에서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고민하는 태도가 있어야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위대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 보다 하나님 닮은 위대한 인격을 가지는지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위대한 인격에서 위대한 성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천박한 성공, 얕은 성공에 목매지 맙시다.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3)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504.